

회고와 전망: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에 대한 회고와  
일치를 향한 전망  
-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 10차 총회를 맞이하여

임 희 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 I. 서 론
- II. '협력과 연합'(에큐메니컬)의 정신으로 출발한  
한국 장로교회
- III. 장로교회의 분열 조짐이 나타난 1930년대
- IV. 1950년대에 세 차례 분열된 장로교회
- V. 분열된 장로교회의 화합과 재결합을 위한 노력
- VI. 결 론: 정리와 제언

## 〈국문 초록〉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1950년대에 세 차례나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 교단들의 화해와 일치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한국 장로교회 120여년 역사가 시작되는 기본 정신이 무엇이고, 또 그 정신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궁금하다. 이 궁금증은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며, 그 뿌리는 오늘날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양하게 병존하는 장로교회 교단들의 공통분모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궁금증으로 말미암아 필자는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과정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다수의 논문이 그 과정을 잘 서술하였기에, 필자는 반복적인 작업을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장로교회 분열의 씨앗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발아되었는지 찾아보기로 한다.

주제어\*

협력과 연합, 공의회와 독노회, 성경기독교, 교단분열, 개혁교회

## I. 서론

이 글을 쓰려는 동기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에 발맞추어, 반세기 이상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화해와 일치의 길이 어디에 있겠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려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본디 하나였던 한국 장로교회가 무슨 연유로 쪼개지고 또 어떤 과정으로 분열되었는지 그 역사(교회사)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런데 필자의 주된 관심은 분열된 교회의 화해와 일치에다 두고자 한다. 분열된 장로교회들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길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는 관심이 크다.

이 글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에 대한 선행연구를 의식하면서 중복 서술을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일어났던 장로교회의 분열과정은 스쳐 지나가듯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분열의 근원이 있는 1930년대의 장로교회 상황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보다 앞서, 1907년 한국 장로교회가 시작되는 ‘독(립)노회’의 노회록을 찾아보며 장로교회의 기원과 뿌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협력과 연합’(에큐메니컬)의 정신으로 출발한 한국 장로교회

### 1. 공의회(公議會, Council)의 조직에서 독(립)노회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장로교회는 ‘연합과 일치’(에큐메니컬)의 정신으로 출발했다. 그 정신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1907년 9월 17일, 제1회)”의 서문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다.<sup>1)</sup>

... 하느님께서 우리나라 인민을 도라보샤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렐냐] 장로교회와 [가나나] 장로교회의 주를 밋는 모든 형제즈 매들의 마음을 감동식혀 이 네곳교회 총회로 선교스를 택명하야 이곳에 보내시

1)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회록』(1907), 2-3.

매... 이 네곳총회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장로회 로회를 세우기로 허락는고로 장로회 회장 마포삼열 목사께서 네곳 총회의 권을 얻어 한국교회에 로회되는 취지를 설명하시되... 주 강생 일천구백칠년 구월 십칠이 오정에 한국로회를 설립후후 대만에 신학교 졸업학스 날곱사름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민국 예수교장로회 로회라 하섯스니 이는 실노 대한민국 독립로회로다.

이 서문은 한국 장로교회의 출발선언문이라 말할 수 있다. 장로교회의 바탕 조직은 ‘노회’(presbytery)인데, 위의 서문은 한국 장로교회가 외국 선교부로부터 독립하는 ‘독노회(獨老會)’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것이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한국 장로교회 제1회 독노회는 내한 선교사들의 연합과 협력의 결실이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13년이 걸렸다. 즉, 1893년에 장로교회의 ‘공의회’가 조직되었는데, 4개국(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단들로부터 각각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공의회를 조직하였다. 공의회는 한국에서 토착 장로교회가 자치적 치리(治理)기구인 노회를 조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립하기로 했다.

공의회가 벌인 사업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일이 토착인(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설립한 것이었다. 1900년 평양의 공의회가 장대현교회의 장로 김중섭과 방기창(2명)을 ‘목사후보생’으로 선발했고, 그 이듬해(1901) 가을 그 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사 마펫(S. A. Moffett)이 이들에게 신학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이리하여서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신학교의 설립목적이 토착인 목회자양성이었으므로, 공의회에 가입한 교단들의 선교부는 1905년에 각각 본국의 교단(해외선교)본부에게 한국에서 자치적 치리기구인 노회를 설립해도 좋은지 문의하였고, 그리고 허락을 얻었다. 이에 공의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1907년 6월에 장로회신학교가 첫 졸업생(제1회) 7명을 배출하였고, 석 달 뒤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獨=독립)노회”가 성립되었다. 이 자리에서 졸업생 모두 다 목사안수를 받아 한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다. 이로써 그 임무를 완수한 공의회는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의회시대가 종료되었다. 그리하여서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단으로 출발했다. 1912년에 장로교회 총회(general Assembly)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곧 공의회 조직-신학교 설립-독노회 조직-총회 조직에 이르는 과정은, 내한(來韓) 선교사들의 협력과 연합운동을 대표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는바, 이 운동으로 한국에서 ‘하나(單一)’의 장로교회가 출발하였다. 다시 한 번,

한국의 장로교회는 본디 협력과 연합(에큐메니컬)의 정신에 따라 '하나의 장로교회 교단'으로 출발했다. 만일 내한(來韓) 선교사들에게 협력과 연합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한국 장로교회는 몇 개의 교단으로 분산되어 시작했을 것이다.

## 2. 국·내외로 확산된 장로교회의 연합운동

내한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협력과 연합운동은 계속해서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에게 확산되었다. 감리교회 선교사들과 공동으로 잡지(〈Korea Mission Field〉(1905))와 신문(〈대한그리스도신문〉(1908))을 발간했다. 여러 선교부들이 각각 설립한 병원과 학교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또 주일학교 교재를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선교사들은 한국에서는 아예 교단과 교파의 담장을 허물고 하나의 단일(單一) 개신교를 조직하자고 합의했다. 이러한 목적 아래 1905년 '재한 개신교 선교부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조직되었다. 이 공의회는 "선교사역에 서로 협력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개신교로 합친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 명칭도 "대한예수교회"로 정했다. 이 목표가 성사(成事)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교파들의 연합사업이 지속되었다. 선교사들이 추진하던 가장 중요한 연합사업은 성경번역이었다.

교단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주일학교(교회학교) 사업도 크게 두드러졌다. 1922년에 개신교 10개 교단(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주축)과 외국 선교부들이 '조선주일학교연합회'를 상설기구로 조직했다. 이 연합회는 공동으로 주일학교 교재제작, 공동으로 교사양성, 그리고 잡지(계간, 〈아희생활〉) 발간사업에 주력했다. 좀 더 큰 범주에서, 교회 및 교단들의 협력과 연합운동을 계속 추진하고자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가 창립되었다.<sup>2)</sup> 이것이 오늘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의 시작이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1925년 '국제선교협의회'(IMC)에 가입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통하여 장로교회는 세계 교회와 교류하며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해 나갔다. 해외(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교단의 대표를 파송하여 참석케 하는 일이 활발히 추진

2) 이 연합공의회에 가입한 교단과 단체는 다음과 같다. 조선예수교장로회, 미감리교연회, 남감리교연회, 미국 남·북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미국 남·북감리교회의 선교부, 영국성서공회, 조선기독교청년회(YMCA), 캐나다연합교회 선교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등.

되었다.<sup>3)</sup>

이 가운데서도, ‘기독교청년 면려회’(勳勵會)가 두드러지게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면려회는 선교사 안대선(安大善, Wallis Anderson)이 1921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창시한 기독교청년운동이었다.<sup>4)</sup> 그 당시 국제적인 기독교 청년조직이었던 면려회는 성경연구와 기도, 경건한 절제생활, 그리고 복음전도에 힘쓰는 모임이었다. 회원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며 그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實生) 서약했다. 면려회 조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해(1921년) 장로교회 제 10회 총회는 전국의 교회가 면려회를 조직하도록 결의했다. 1930년 8월 ‘기독교청년 면려회 세계대회(제 8차)’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 세계 48개국에서 6,000 여명이 참석했는데, 조선(한국)면려회연합회의 대표도 참석했다. 조선(한국)이 주권을 상실하여 일제에게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와 동등한 자격을 얻어 참석했고 또한 세계 교회를 향해 한국 교회를 소개하였다. 이에, 면려회 대표단은 국제대회 참석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국제 감각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대표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보고회를 가졌다.

### Ⅲ. 장로교회의 분열 조짐이 나타난 1930년대

#### 1. 신학노선의 대립으로 말미암은 갈등구조 형성

한국 장로교회 제 1세대의 신학노선은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전수해 준 그대로 따라갔다. 당시에 전수받은 신학사상은 -선교사마다 제각각 모국에서 다닌 신학교

3) 1928년 3월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 2차 국제선교대회에 정인과 등이 참석; 1928년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주일학교대회에 김관석과 이성휘 참석; 1929년 6월 보스턴에서 열린 만국 장로교회 및 개신교 협의회에 마펏과 곽안련(C. A. Clark)과 한경직 그리고 최윤관이 참석; 1932년 영국에서 열린 만국장로회 연합회에 게일(J. S. Gale)이 참석; 1937년 6월에 열린 세계 장로교회 총회에 서고도(W. Scott)와 김준성이 참석.

4)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청년면려운동(Christian Endeavor)은 포틀랜드(Portland)시에 있는 웰링스턴 회중교회의 목사 클락(Francis Edward Clark)의 지도로 시작되었다. 김남식, 『한국기독교 면려운동사』(서울: 성광문화사, 1979), 112-14. 안대선은 한국에다 미국의 면려회운동을 소개하는 한편, 미국에서 기독교청년면려운동을 시작한 회중교회의 목사 클락(F. E. Clark)과 여러 차례 편지글을 주고받으며 이 운동을 시작하려는 도움과 자료를 얻었다.

별로 다소(多小)의 입장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보수적이었다.<sup>5)</sup> 그 신학은 ‘성경관’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관은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대변되었다. 이것은 1907년에 제정된 조선(한국)예수교장로회 신조와 1931년에 번역출판된 『기독교증험론(基督教證驗論)』<sup>6)</sup>을 통해 장로교회의 목회자에게 각인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제2세대의 토착 교회지도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였다. 이들은 앞 세대와 다른 입장을 바깥으로 드러내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서 일부는 성경해석에 역사비평학을 도입하고자 했다. 또한,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교사들 몇몇도 역사비평학을 부분적으로 온건하게 소개하였다. 그리하여서, 성경해석방법에 역사비평학을 도입하는 사례가 차츰 확대되어서 이것이 신학교와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성경관을 바탕으로 보수적 근본주의 노선과 온건한 진보주의 노선이 서로 대립하여 충돌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

양 편의 충돌이 1926년 가을에 열린 함경노회 교역자 연수회에서 처음 일어났다고 본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서고도(徐高道, W. Scott)와 미국 유학생 출신 김관식(金觀植)과 조희염(曹喜炎)이 역사비평학을 소개했다. 그러자 참석자 다수가 거센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주최 측은 사태를 무마시키고자 서둘러 모임을 종료시켰다. 그 이후로, 1934년에 보수적 노선과 진보적 노선이 장로교회의 총회에서 크게 충돌했다. 이것은 “창세기 저작자 문제”, “여성치리권 청원 문제”, 그리고 “아빙돈 주석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창세기 저작자 문제는 “구약성경 창세기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서술한 글에서 발단되었다. 문제의 글이 교회 주일학교(장년부) 교재 『만국주일공과』에 실

5) 프린스턴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는 19세기 미국 보수적 칼빈주의 신학사상을 가졌고, 매코믹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는 보수주의 신학에 청교도적 엄격성과 경건성이 몸에 배어 있었고, 리치몬드 유니온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트 신조에 충실한 장로교회 전통을 갖고 있었고, 캐나다 장로교회도 -웨스트민스트 신조에 충실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뿌리를 두었기에- 이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도 비슷한 입장이었고, 호주 장로교회 출신의 선교사들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6) 이 책은 중국인 가옥명(賈玉銘, Chia Yu Ming)이 저작한 *Evidences of Christianity*를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책이었다. 이 책은 가옥명(賈玉銘)이 미국의 정통주의 신학자로 이름이 높던 A. H. Strong의 *Systematic Theology*와 그의 아들 A. A. Hodge의 *An Outline of Theology*를 토대로 해서 저술한 것으로 그 내용은 19세기 미국 장로교회의 정통주의 사상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 이 책을 신학교의 교수로 일한 선교사 이눌서(李訥瑞, William D. Reynolds)가 오랫동안 안 교재로 사용했다.

려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장로교회 신조 제 1조(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교단 안에서 들끓었다. 이 문제가 총회의 정치부에 접수되었다. 이 글에는 필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총회석상에서 필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필자가 서울 남대문교회 담임목사 김영주(金英珠)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다. 함경도 출신인 그는 그 지역의 선교사 서고도에게 영향을 크게 입었고 일본으로 유학가서 간사이(關西)학원 신학부를 졸업했다. 그의 이력과 학력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는 진보적인 신학자였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총회가 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일 년 뒤, 특별연구위원회는 “창세기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는 주장이 “파괴적인 성경 비평가들의 이론”이라 규정하고 이 주장을 펼치는 자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능욕하는 자.”로 결론지었다. 이 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인 총회는 장로교회 신조 제 1조에 위반하는 자는 “교회의 교역자됨을 거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sup>7)</sup>

여성치리권 청원 문제는 위의 사건과 맞물려 있었다. 이 문제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치리권(“여성장로직”)을 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도 함경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함남노회(咸南老會) 산하 22개 교회 여성들이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장로직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sup>8)</sup> 이 청원을 지지하는 김춘배(金春培) 목사는<sup>9)</sup>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는 2천 년 전의 한 지방(고린도)교회의 교훈과 풍습(인테) 이것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인데요.”라고 주장했다.<sup>10)</sup> 그러자 순식간에 여성치리권 청원 문제가 성경해석의 문제로 옮겨갔다. 1934년도 장로교회 총회(제23회)가 이 문제를 ‘창세기 저작자 문제’와 함께 다루었다. 여성치리권에 대한 문제가 성경이해의 문제로 연계되었다. 이 문제를 다룬 특별연구위원회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34절, 디모데전서 2장 12-15절에 대한 해석<sup>11)</sup>을 바탕으로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대사

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4회 회록>(1935) 그러나 김영주 목사에 대한 정치적 처리는 실시되지 않았다.

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2회 회록>(1933).

9) 김춘배 목사는 김영주 목사와 같이 1933년경 일본 간사이(關西)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였다.

10) 김춘배, “장로회 총회에 올리는 말씀,” 『기독신보』, 1934. 8. 22.

1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4회 회록>(1935)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의 교회 공석상 언권을 불허한 것도 그 교훈강도권과 치리권을 모두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마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두 가지를 갈라 말하였으니 즉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여 여

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은 그 정신태도가 파괴적 성경 비평의 정신태도와 다름이 없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여성치리권을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도 장로교회 신조 제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정했다. 이에 따라 김춘배의 성경해석은 커다란 오류라고 결론지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에게 교권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결론이었다.

아빙돈(Abingdon) 단권주석은 1934년에 한국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유형기(柳潁基)의 편집책임아래 번역·출간되었다. 원서는 미국 아빙돈출판사에서 발행한 『성경주해서』(The Abingdon Bible Commentary, 1930년)이고, 이 주석의 간행에 서양 신학자들이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좋은 반응을 받았다.<sup>12)</sup> 그런데, 주석의 총론에는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기록인 동시에 인간의 역사적 산물인 문학작품으로 이해되기에 이에 성경연구에 역사비평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주석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신학자 53명이 참여했다.<sup>13)</sup> 장로교회에서는 채필근(蔡弼近, 요한복음), 송창근(宋昌根, 데살로니가전후서), 한경직(高鎔道전후서), 윤인구(윤한서신, 묵시), 김재준(金在俊, 미가), 조희염(曹喜炎, 바울의 일생과 사업), 김관식(金觀植, 아모스) 등이 참여하였다. 이 주석의 초판이 1934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주석이 출간되자마자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반향(反響)이 일어났다. 감리교회에서는 진보적 신학사상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으므로 문제로 삼지 않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이 주석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절대무오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이 주석은 장로교회 신조 제1조에 위배되고 성경의 무오성과 완전성을 파괴하여 한국 교회의 보수적 전통을 깨뜨리려는 행위라고 판정받았다. 1935년 장로교회 총회(제24회)는 이 주석을 정죄하였다. 이와 함께 총회는 장로교회의 성경주석을 집필하기로 하고 그 이름을 <표준 성경주석>이라 하며 위원장에 박형룡을 위촉했다.

자의 공례배석에서의 교혼 강도권을 금하고 또 “사나이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아니”하여 그 교회치리권을 금하였나이다. 바울은 여기서 여자에게 교권을 불허하는 이유 두 가지를 다시 말하였으니 1)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후에 지음을 받았으며”라고 말하여 창조의 차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뒤졌다는 것을 지적하였나이다.... 2) 다음에 14절에는 바울이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사실을 말하여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교도(敎導)의 재능이 결핍함을 지적하였으니 그것은 여인의 교권을 금함에 보다 더 강한 이유이었나이다.”

12) 문희석, 『한국교회구약성경해석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73.

13) 이찬영, 『한국 기독교회사 총람』, 397.

이때부터 박형룡과 김재준의 신학적 대립과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박형룡은 장로회신학교(평양)에서 변증학을 가르치는 정교수였는데,<sup>14)</sup> 그는 신학교가 발간하는 잡지 『신학지남』에 김재준·송창근의 글이 실리지 못하게 했다. 박형룡은 김재준의 신학사상이 아빙돈단권주석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의 입장을 “신신학설” 혹은 “뿔사상”이라 지칭했다. 또한 그가 저술한 『근대기독교신학난제선평:학파편』(1935년)에서 그는 성경의 고등비평을 비판하였고 또 여기에 근거한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정통신학이 무엇인지 천명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그는 자유주의와 바르트 신학사상을 별 구분 없이 사용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이 나중에, 1945년 8·15해방이후에, 김재준과 다시 한 번 더 충돌하게 된다. 이때의 김재준은 성경연구에 역사비평학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정통주의 노선과 동일했다.<sup>15)</sup> 그의 신학사상은 바르트(K. Barth)를 충실히 따르고자 했다. 이 입장은 8·15해방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 2. 일제의 교회 탄압

1930년대 중반이래로 한국 교회(개신교)의 협력과 연합사업이 크게 흔들렸다. 1935년에 장로교회 총회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서 탈퇴했고 이에 뒤따라 연합사업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 무렵부터, 일제의 총독부가 개신교(특히 장로교회)를 서서히 탄압하기 시작했다. 1937년과 1938년에 교회지도자 다수가 일제에게 체포되었는데, 면려회의 지도자들도 체포되었다. 그 결과 면려회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38년 장로교회 총회가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한 다음, 곧 바로(9월 19일) 면려회 전국연합회도 강제 해산되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도 강제 해산되었다.

일제는 신사참배의 강요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와 직접 부딪쳤는데, 신사참배는 일제가 중국 대륙침략을 위해 조선(한국)에서 펼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정책

14) 박형룡은 1933년 2월 미국 캔터키 주 루이빌 남침례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듬해(1934)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그 해의 총회에서 그는 창세기저작자 문제와 여권문제를 다루는 연구위원이었다. 그가 주도로 작성된 연구보고서가 1935년 총회(제 24회)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5) 김재준은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탄생과 그의 육체적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 내용이 그가 『신학지남』에 기고한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연구”(1934)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연구”(1935)에 잘 나타나 있다.

에 속하였다. 중국을 향한 일제의 야욕은 ‘만주사변’(1931), ‘상해사변’(1932), 그리고 ‘중일전쟁(1937)’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얻어내고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동화(同化)시키고자(內鮮一體) 황국신민화정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조선교육령개정’, ‘신사참배’, 그리고 ‘창씨개명’이 그 골격을 이루었다.

1930년 이전에는 일제가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그리 심하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선(한국)인의 정신개조차원에서 그 정책을 바꾸었다. 1936년 8월에 일제는 ‘개정신사규칙’(총독부령 제76호)을 공포하여 1개 면에 1개의 신사를 세웠다. 각 가정에도 신봉을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천조대신의 부적을 사서 매일 아침에 예배하도록 강요했다. 일제는 기독교학교(Missionschool)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장로교회 총회와 선교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다. 여타 대다수 개신교 교단들은 신사참배강요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이것을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거부했다. 중일전쟁(1937.7.7)을 계기로 일제는 신사참배를 심하게 강요했다. 일제는 교회에게 시국기도회를 개최했고, 몇몇 교회지도자들에게 ‘시국순회강연’에서 전쟁협력을 위해 강연하도록 지시했으며 또 신문과 잡지에다 일제에 협력하는 글을 기고하도록 했다. 일제는 황국신민화정책에 거역하는 교역자들을 체포하여 투옥시켰다.

1938년에 일제는 장로교회를 향해 전략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전국 노회들을 하나씩 들쭉 무너뜨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총회를 굴복시키는 전략이었다. 2월 9일 평북노회가 일제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 인정하며 결의했고, 그 이후로 가을에 장로교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서 17개 노회가 굴복했다. 드디어, 장로교회 제27회 총회(1938.9.9)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성명서를 낭독했다.<sup>16)</sup> 그리고 즉시, 총회에 참석한 전국의 노회장 23명이 평양의 신사로 찾아가서 참배했다.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한 장로교회는 이제부터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교회는 생존을 위해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생존마저 유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신사참배와 더불어 장로교회는 일제 제국주의 전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총회는 노회 단위로 국방헌금을 걷었다.<sup>17)</sup> 전쟁물자 공급을 위

1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7회 회록>(1938).

1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1회 회록>(1942), 50. 장로교회는 1942년 2월 10일에 일본 해군

해 교인 각 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낫그릇(유기)을 바쳤고, 또한 교회의 종탑에 걸린 종마저 떼어다가 바쳤다. 게다가,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당건물을 매각하여 전쟁비용으로 바쳤다. 일제는 전국의 면단위로 1개의 교회만을 남겨 놓는 합병을 추진했다. 매각 처분된 교회의 부동산이 국방헌금으로 들어갔다. 교회의 통폐합으로 교세가 현격하게 약화된 장로교회는<sup>18)</sup> 1942년 제31회 총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하였다. 1943년 5월 장로교회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되었다. 그 이후, 한국 개신교회의 교파들은 1945년 7월 19에 일제의 강압으로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으로 통합되었다.

장로교회의 총회가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에 굴복하는 동안에, 그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며 저항한 신앙인들이 있었다. 평안남도의 주기철(朱基徹), 평안북도의 이기선(李基宣), 경상북도의 이원영(李源永), 경상남도의 한상동(韓尙東)과 주남선(朱南善) 그리고 손양원(孫良源) 등이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외국으로(중국 등) 빠져나간 신앙인들도 적지 않았다. 8·15해방까지 약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여 신앙인들이 투옥을 당했다. 이 가운데서 50여 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옥사)하였다.<sup>19)</sup>

#### IV. 1950년대에 세 차례 분열된 장로교회

본디, 하나의 교단이었던 한국 장로교회가 1950년대에 세 차례 분열되었고, 그 결과 장로교회가 4개의 교단으로 나뉘었다. 1952년 제1차 분열에서 “고신” 교단이, 1953년 제2차 분열에서 “기장(기독교장로회)” 교단이, 1959년 제3차 분열에서 “예장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과 “예장통합(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이 생성되었다. 교단의 분열과정에 관하여 수많은 논문이 다루었기에, 이 논문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자 한다.

- 
- 에 비행기 한 대와 기관총 7정 구입에 필요한 전쟁비용인 150,317원 50전을 헌납하였다. 같은 해 6월 19일에는 육군환자용 자동차 3대 기금을 헌납하였고, 9월 20일에는 해군에 헌납한 함상전투기 명명식을 서울운동장에서 가졌는데 이 비행기의 이름을 “조선장로회”라 붙였다.
- 1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1회 회록>(1942), 1. 1942년의 장로교회는 전년도에 비해 교회수가 750개 감소하였고, 교인수는 76,747명이 줄어들었다.
- 19) C. D. Fulton, *Now is the Time*, 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U.S., 1947), 132.

그런데, 1950년대의 장로교회 분열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30년대에 싹이 돋았으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관련하여 냉동(冷凍)되어 있다가,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해동(解凍)되면서 새로이 자라나서 빛어진 결과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1950년대 장로교회 분열의 쟁점들은 1930년대에 발생했던 쟁점들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제1차 분열(1952)은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강요에 대한 굴복이 주된 쟁점이었고, 제2차 분열(1953)에서는 성경관에 대한 논쟁이 주된 쟁점이었고, 제3차 분열(1959)은 일제 강점기 말기에 단절되었던 한국 장로교회의 국제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 V. 분열된 장로교회의 화합과 재결합을 위한 노력

1950년대의 장로교회는 몇 차례 분열되었는데 그러나 분열직후에 화합과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노력과 시도는 분열이란 어떠한 명분도 정당시 될 수 없으니 분열만은 막아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 1. 제 39회 총회(1954년)의 “신사참배취소성명”

1952년도에, 분열된 교단이 다시 합쳐져야 한다는 뜻을 모은 교계지도자들이 고신(고려신학교) 교단과의 재결합을 위해 설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기존의 총회가 이미 1946년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 취소를 결의했지만 한 번 더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겠으며, 2) 장로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를 다시 합치되 박형룡 목사를 부(副)교장으로 하겠으며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를 총회가 인정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에 대하여 고신 교단은 냉철한 자세로 총회가 먼저 “고려신학교측을 잘라낸 것(축출시킨 것)이 과오였다.”는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1953년도 봄(5월), 총회가 한국신학대학(조선신학교) 졸업생에게 교역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는데도, 목포노회가 이 결의를 따르지 않고 한국신학대학 졸업생에게 목사안수를 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목포노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노회가 분열되었다. 총회의 분열이 노회의 분열로 파급된 것이다.

이 문제를 수습하려는 총회는 부총회장(한경직)을 목포에 파송하여 양측의 화해와 통합을 설득했다.

1954년도의 장로교회는 고려신학교과, 재건과, 복구과, 자유과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sup>20)</sup>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총회의 지도자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교계(敎界)의 관심이 이원영(李源永, 1886-1958) 목사에게 쏠렸다.<sup>21)</sup> 그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출옥성도였고 최근에는 ‘경남노회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고려신학교 측이 총회로 복귀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교회지도자들이 주목했다. 그는 신실한 목회자로서 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으므로 총회장이 되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여론이 돌았다. 장로교회 제39회 총회(1954년 4월 23일)는 이원영을 총회장으로 ‘추대’하여 선출했다.

대다수 총대들은 교단분열의 일차적 원인이 신사참배문제에 있다고 파악했다. 때문에 이번 총회기간에 가장 먼저 그 죄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고려신학교 측 교회를 총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사참배 죄를 통회하는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sup>22)</sup> 신앙양심을 바르게 세우고 교단의 재결합을 위한 총회의 죄책 고백이 긴급하게 요청되었다.

장로교회 제39회 총회는 1938년(제27회)에 결의한 신사참배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sup>23)</sup>

“대한예수교 장노회 제39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의교회에서 회집한 제27회 총회결의인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써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의 성명에 대해 그 결의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결의 실행했으되 남북통일 총회가 아니었던 고로 금번 남북이 통일된 본 총회는 이를 취소하고 전국교회 앞에 성명함”

(1954년 5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원영)

20) 『기독교공보』, 1954. 4. 12.

21) 임희국, 『선비목회자 봉경 이원영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2001), 266이하.

22) 『기독교공보』, 1954. 4. 12.

2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39회 회의록>(1954), 263.

이 성명서와 함께 분열된 총회가 화해하여 화합되기를 기원했다.

## 2. ‘통합촉진위원회’(1959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 관한 성명서”

1954년도 제39회 총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는 화해를 통한 재결합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흘러갔다. 1959년 9월에 장로교회가 또다시 분열되었다.<sup>24)</sup> 그로부터 한 달 뒤, 방금 분열된 장로교회의 재결합을 위해 ‘통합촉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sup>25)</sup> “통합방안”을 마련한 위원회는 분열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제안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75년간의 신앙전통을 지킨다. 2) 총회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WCC와 ICCCN(AE)를 탈퇴한다.<sup>26)</sup> 3) 선교정책을

24) 분열의 원인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아직까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장로교회 ‘합동’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참여문제로 야기된 ‘신학적 차이’가 분열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이고, 장로교회 ‘통합’은 박형룡 교장과 관련된 ‘3,000만환 사건’이 분열의 직접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합동측은 소위 “3,000만환 사건은 어디까지나 분열의 2차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통합측은 “WCC문제는 분열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5) 그 대표는 다음과 같았다: 서금찬, 황봉찬, 박형순, 백한걸, 박윤형, 임택진, 김성수, 김지석, 방지일, 박성겸, 김성철, 김세진, 강문호, 엄두섭, 임옥, 방병덕. 참고: 『한국기독교공보』, 1959. 12. 7.

26) 여기에 대하여 마삼락(Samuel H. Moffet)이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먼저, ICCCN과 NAE를 구분해야 한다고 그가 역설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NAE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기독교인들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친교로 친밀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WCC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WCC는 “모든 교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케 하며 연합시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 두 기관이 사이 좋게 지낸다. 그러나, ICCCN(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은 NAE와 전혀 다른 기관이다. ICCCN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에게 증오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ICCCN의 대표인 매킨타이어(Carl McIntyre)는 처음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정통장로교회”를 갈라 나갔고, 그 다음은 정통장로교회에서 “성경장로교회”를 갈라 나갔고, 또 그 다음엔 성경장로교회를 분열시켰다. 이처럼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서 정통을 표방하면서도 교회를 분열시킴으로써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 뿐이다. 그들은 실제 자유주의 경향으로 기울어진 교회에는 아무런 역할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킨타이어는 “일찌기 브라질에서도 한국과 같은 분열을 조장한 사람이다.” 마삼락, “현대 기독교의 난관과 기회,” 박기睦, 『世界教會運動小考』(聖學社, 1957), 4, 14-15. ICCCN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되었다. 주관자는 매킨타이어였다. 그는 오랫동안 회장직을 독점하여 이 단체를 사유화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교회가 이 단체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1950년 당시 고신측의 한상동, 박윤선 등이 매킨타이어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가서 그가 만든 Faith 신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때부터라고 한다. 채기은, 『한국교회사』(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243-44.

양측이 협의하여 재추진한다.”

장로교회의 세 번째 분열은 세계 교회에도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미국 장로교회의 임원단이 11월 9일 내한하여 먼저 ‘통합촉진위원회’와 회합하고, 그 다음 “승동측”과 회합했고(11월 16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동측”과 회합했다(11월 17일). 연이어서(11월 18일) 일행은 양측을 함께 초청하여 연석회의를 가졌다.<sup>27)</sup> 이 회의를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회,<sup>28)</sup>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함께 주관했다. 연동·승동 양측 위원과 세 선교회 대표는 연이어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여덟 차례 회의로 모여서 분열된 장로교회의 화합을 모색했다. 그러나, 1월 15일에 양측의 노력이 “완전히 결렬”되었다.

이제 통합촉진위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 관한 성명서”를 내면서 아래와 같이 통합방안을 발표했다.<sup>29)</sup>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말씀으로 된 성경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자라왔음을 잘 아는 까닭에 또 교회의 대다수인들이 열렬히 교회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중히 아래와 같이 결의함

① 한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1920년대 이래 평양 신학교 교수들의 신

27) 방병덕,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분열과 통합에 대한 회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북동회 송천교회>. 연동측은 전필순, 한경직, 김석찬, 유호준, 이창규, 김광현, 안광국, 김봉준, 최중해, 김형남 등이었다. 승동측은 이인식, 최재하, 이승길, 고성모, 나덕환, 권연호, 박병훈, 명신홍 등이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도 11월 16일 날짜의 편지로 “세계교회가 분열된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만은 분열되어서는 아니되오니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28) 미국 연합장로교회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19세기 미국의 내전(남북전쟁)으로 인하여 두 개의 장로교회(북/남)로 분열되었다. 이 무렵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새로 이민 온 장로교회 교인들도 연합장로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이후로 미국의 장로교회는 북 장로회, 남 장로회, 연합장로회로 갈라져 있었으며 모두 다 스코틀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세 개의 가지였으므로, 세 개 장로교회 교단들이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무르익어 갔다. 교단 교류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다가, 1958년에 북 장로회와 연합장로회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했다. 흥미로운 점은, 북 장로회가 자신의 교단이름을 포기하고 연합장로교회로 개칭하였다. 북 장로회의 교단 규모가 훨씬 크고 방대했는데도 자기의 이름을 포기했다. 미국 북 장로교회가 “연합장로교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1958년), 이에 한국에 파송된 그 교단의 선교부를 “에큐메니칼 선교부”로 개칭하였다.

29) 『기독공보』, 1960. 2. 1.

양고백에서 진술된 신앙을 재긍정하는 토대 위에서 재통일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교회의 75년의 보수적 전통을 고수한다.

(중략)

- ④ 한국 교회는 WCC에 대한 심각한 의견차이 때문에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이를 탈퇴한다.
- ⑤ 한국 교회는 자유주의적이요 용공주의적이요 세계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어떠한 운동에도 반대한다.
- ⑥ 한국 교회나 그 기관단체가 ICCC(국제기독교연합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한다.

(중략)

- ⑧ 1960년에는 우리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 성과 없고 쓸데 없는 쟁론을 중단시키고 또 성경공부와 전국적 복음 운동을 강조할 것을 각 교회에 호소한다.

(중략)

1960년 1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에 관한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준비위원회

위의 성명을 지지함

평화통일촉진준비위원회, 승동측 총회, 연동측 총회, 남장로회 선교회,  
호주 장로교 선교회, 연합 장로교 선교회

그해 2월 17일, 연동측, 승동측, 중립측(총회 화평통합촉진위원회)에서 통합을 원하는 총대들과 세 선교회(미국 남,북, 그리고 호주 장로회)가 새문안교회에서 모였고,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통합측)가 개최되었다. 통합총회는 대전 중앙교회와 서울 연동교회에서 모인 제44회 총회를 확인하고 그 모든 결의를 인수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한 중요한 사안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용공도 아니고, 신신학도 아니며, 더욱이 단일 교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분열된 장로교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이 단체에서 탈퇴하기로 했다.’<sup>30)</sup>

통합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승동측은 1960년 2월 13일 고신과 합하여 “합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통합측) 회의록> (1959), 160.

동측”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가, 1962년 11월 19일 또 다시 분열하였다. 그 뒤로도 통합측과 합동측은 “통합위원”을 계속 두고 있었다.

## Ⅵ. 결 론: 정리와 제언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 속에서 1950년대에 일어났던 교단분열을 되돌아보았다. 1950년대의 교단분열은 1930년대에 이미 분열의 씨앗이 싹트고 자랐다는 점을 주지하며 이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1930년대 장로교회 안에서 형성된 갈등구조는 성경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노선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는데, 이 대립관계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장로교회가 일본기독교교로 편입됨으로써 냉동(冷凍)되었다가, 1945년 8·15해방이래로 냉동상태가 해동(解凍)되며 그 갈등이 되살아나 드디어 1953년 ‘기장(기독교장로회)교단’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입증하였다. 또한, 1938년 장로교회의 신사참배 결의가 비록 일제의 강압을 이겨내지 못한 피치 못할 결정이긴 했으나 이것이 8·15해방 직후 교단분쟁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마침내 1951년 ‘고신(고려신학교)교단’이 생성되는 결말을 낳았다고 입증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장로교회의 에큐메니컬 국제교류가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는데, 역시 8·15해방과 더불어 한국 장로교회가 끊어진 국제교류를 다시 잇고 세계교회협의회(WCC) 회원이 되었는데, 1950년대 냉전시대에 이 국제관계가 장로교회의 분규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장로교회 통합교단의 지도자들은 이 분규가 하나의 명분이었는바 중대한 실책(소위 삼천만환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획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하여 새로이 발견한 점이 있는데, 1950년대의 장로교회에서는 분열만 거듭되지 않았고 분열직후에 화합과 재결합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는 점이다. 고신교단과의 화합을 위하여 1954년 제 39회 총회가 ‘신사참배취소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또한 1959년도 교단분열 직후에 결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데, 1950년대 초반에 일어난 두 번째 분열(“기독교장로회” 교단 생성)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분열된 상태인 한국 장로교회의 화해와 일치의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교회일치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한국 장로교회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첫째로, 한국 장로교회는 공통기반인 '성경기독교'로 일치될 수 있다고 본다. 성경기독교는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查經會)를 기초로 형성되었다. 사경회는 장로교회가 이 나라의 문화토양에 정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31)</sup>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향해 자긍심을 갖는 새벽기도회는 사경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신앙경건훈련이다.<sup>32)</sup> 이런 식으로, 성경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장로교회의 중심에 있다.

둘째로,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적 전통은 '상호협력과 연합'의 정신(에큐메니컬 정신)이다. 보수적 전통이란 1907년 장로교회 독노회의 회록 서문이 선포한 연합과 일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1959년도 장로교회 분열직후에 통합촉진위원회는 교단화합을 촉구하는 성명서의 첫 머리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교회의 75년의 보수적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sup>33)</sup> 따라서,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은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한다.

셋째로, 연합과 일치는 -기구와 제도의 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우선적

31) 이미 1890-91년에 선교사 기포드가 언더우드의 집에서 사경회(bible class)를 열었다. 참고: Herbert E. Blair, "Fifty Years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Church," in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June 30-July 3, 1934), (Seoul: Post Chapel, John D. Wells School, 1934), 120.

32) 새벽기도회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는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5호 (2006. 9), 75-81을 보라. 옥성득에 따르면, "장대현교회의 이 새벽 기도가 1906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게 된 것은 김인서가 1936년에 발표한 "靈溪先生小傳(續-)," 『신앙생활』, 1936년 1월, 28쪽 때문"이었다. 참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244-45.

33) 이와 관련하여서 김용준 목사(서울 수송교회 담임역임)는 1969년에 "우리가 보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독로회 교회설립취지문에서 밝힌 대로 초대교회에서 유래한 개신교의 한국교회의 전통과 네 모교회(母敎會)의 성경을 지키는 것이 곧 보수를 뜻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1936년에 미국 북장로회에서 이탈해 나간 소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의 독선적인 맹종의 강요를 추종하는 것을 전통인양 생각했다는 것은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 사실이다. ... WCC적인 교회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지키는 것이므로 보수란 근본주의자들의 현혹에서 벗어나 옛날의 우리 교회의 운동을 이어 받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용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원교회상," 김용준 엮음, 『대한예수교장로회와 WCC』(서울: 수송교회당회, 1969), 22.

으로 연대하고 화합해야 할 일이다. 맨 먼저 목회자들 사이에서 연합과 일치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다양한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운동이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의 전망을 환히 밝히고 있다. 하나의 예로 들자면,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이하, 한목협)의 일치·갱신·연합운동이다. 1998년에 창립된 한목협은 교회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분단현실을 극복하여 화해케 하고, 세계의 경제적 양극화의 현실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변혁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인식의 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며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왔다.

끝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인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원리에도 ‘연합과 일치’가 크게 강조되었다. 특히 ‘제2 스위스 신앙고백’(1566, 2nd Helvetic Confession)는 개혁교회들의(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화란, 체코 등) 공동 신앙고백서이다. 이러한 개혁교회의 유산을 이어받은 한국 장로교회의 교단들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원교회상.” 『대한예수교장로회와 WCC』. 김용준 엮음. 서울: 수송교회당회, 1969.
- 마삼락. “현대 기독교의 난관과 기회.” 朴昌睦 譯. 『世界教會運動小考』. 서울: 聖學社, 1957.
- 박경수. “부처와 칼뱅: 16세기 교회일치의 옹호자들.” 『칼빈연구』 제2집 (2004), 161-85.
- \_\_\_\_\_.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1541)과 <취리히합의>(1549)를 중심으로.” 『칼빈연구』 제3집 (2005), 207-28.
- 방병덕.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분열과 통합에 대한 회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북노회 송천교회.
- 육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의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5호 (2006. 9), 57-95.
-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임희국. 『동신교회 겨자씨 신앙운동 50년(1956-2006)』. 50년사 출판분과위원회 엮음. 서울: 동신교회, 2007.
- \_\_\_\_\_. 『선비목회자 봉경 이원영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2001.
- \_\_\_\_\_.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한국문화이해.” 『선교와 신학』 제13집 (2004), 53-84.
- \_\_\_\_\_.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편집위원회 편. 『한국교회의 영적부흥과 리더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435-76.
- \_\_\_\_\_. “불링거의 생애와 신학사상.”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 채기은. 『한국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편. 『일치, 갱신, 섬김 10년의 여정』. 고양: (주)프리테크인, 2008.
- Blair, Herbert E. “Fifty Years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Church.”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June 30-July 3, 1934). Seoul: Post Chapel, John D. Wells School, 1934.

Gale, James S. *Korea in Transition* (1909). 신복룡 역. 『전환기의 조선』. 서울: 집문당, 1999.

『기독교공보』, 1954. 4. 12.

『기독교공보』, 1959. 12. 7.

『기독교공보』, 1960. 2. 1.

『경안노회 제2회 회록』 (1922. 6).

『대한예수교장로회 로회회록』 (1907), 2-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39회 회의록』 (1954), 26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통합측) 회의록』 (1959).

< Abstract >

## Retrospect and Prospect: Division Process and Reconciliation Plan to Unit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Hee-Kuk Lim** (Dr. theol.)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PCTS

As the 10<sup>th</sup>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s scheduled to be held in South Korea 2013, we hope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among the divided Presbyterian denominations.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iginally began towards the end of the 19<sup>th</sup> century with the conviction “cooperation and alliance” (ecumenical). In 1901,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now known as th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represented this disposition. However, division sprouted with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the 1930s and split three times in the 1950s. Since then, even though the Presbyterian Church denominations remained in its divided state, they have tried in various ways to reconcile and reunify. The agreement plan of the Presbyterian Church, which is the argument of this essay, rests on the integration plan of the ‘Integration Promotion Committee’ of the 1959 which was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division. In other words,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denominations should reunite as a Biblical Christianity, as it is the common denominator and heritage of all the Presbyterian denominations. Furthermore, cooperation and alliance should be re-established by reviving the conservative tradi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only way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can come to reunite and agree is if the people have solidarity and alliance. For example, pastors must serve together

in ministry with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nd in the midst of that agree in thought and intention to push forward a good business. Everyone must acknowledge the diversity of various denominations and agree with one another in Jesus Christ. Working together with the same heart will prevent doctrinal or theological debate, and instead, a joint vision will be sought together, developing collaboratively the action of sharing and serving. This follows the ecumenical spirit of the early 20th century Europe that corresponds to the proverb that says, “Theory and debate divides but serving unites”<sup>34)</sup>

Lastly, alliance and agreement is strongly emphasized even in the principle of the Reformed Church, which is the root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For example,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s a joint Confession of Faith by the Reformed Church (Switzerland, France, Hungary, Poland, Netherland, the Czech Republic, and etc).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denominations that have inherited the legacy of the Reformed Church must reunite and agree in Jesus Christ on the basis of the Bible, the Word of God, throug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

34) In 1925, according to this spirit, Europe Reformed Church leaders met in Stockholm, Switzerlan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lled ‘Life and Work’.

### Key Words \*

Cooperation & Unity, Council & Presbytery, Bible-Christianity, divided Presbyterian denominations, Reformed Church